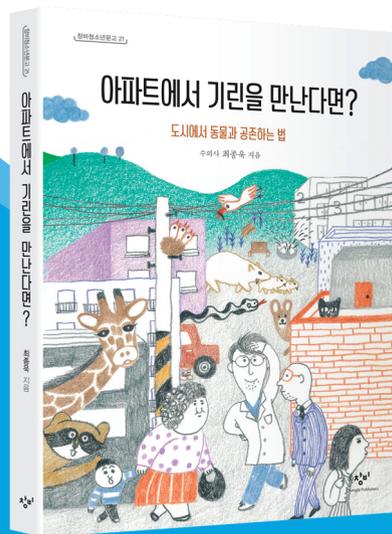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2

상산고등학교 강영준 선생님

어느 수의사의 동물 공감 일기

최종욱 지음,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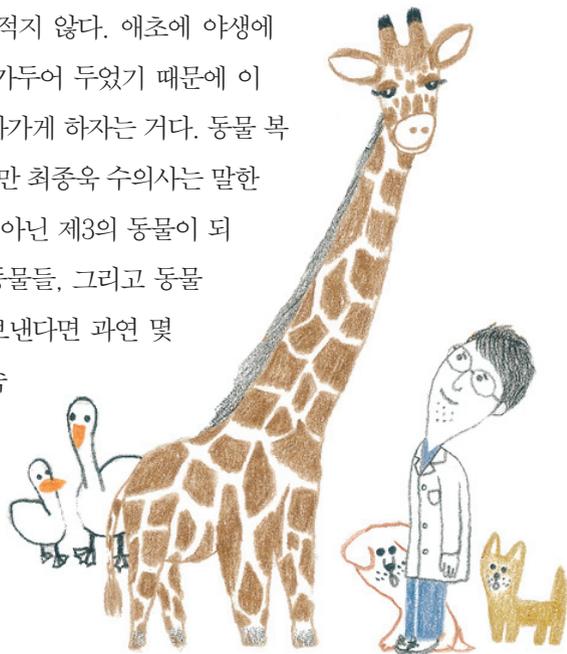


책 소개

드넓은 대관령 목장.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홀로 가곡을 부르는 낭만적인 수의사의 모습을 쫓아 진로를 결정한 최종욱 수의사.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은 하루하루 동물들과 아파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수의사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다. 수의사가 된 계기와 동물원에서 각종 동물들과 함께한 이야기, 그리고 대관령 목장에서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물 부검의로서의 경험이 빼곡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기 어려운 도축장 분위기까지 전하는 등 수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공감할 수 있게 쓴 책이다.

최종욱 수의사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 처음 접한 일은 대관령 목장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대학에서 경험하지 못한 대형 동물들을 진료하고 처방하며, 때로는 수술도 하면서 수의사로서 해야 할 진료의 대부분을 배웠다고 한다. 위에 구멍을 뚫어 배앓이를 하는 소를 치료하고, 새끼를 낳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소를 도와 무사히 출산을 시키면서 보람을 느낀 기록들이 쓰여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욱 수의사는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동물들을 아낀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흔히 우유를 짜내는 목장의 일이란 동물을 괴롭혀서 인간의 이로움만 추구하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오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재 최종욱 수의사가 하는 일은 광주에 있는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다. 동물원은 다종다양한 동물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곳으로서 이들에게는 제2의 안식처다. 요즘은 동물원을 없애자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애초에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을 좁은 울타리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자는 거다. 동물 복지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최종욱 수의사는 말한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야생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 제3의 동물이 되었다고. 그는 묻는다. 만약 동물원에 적응된 동물들, 그리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진짜 야생으로 돌려보낸다면 과연 몇 퍼센트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동물들의 목숨은 얼마 안 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 동물원의 동물들을 자연에서 온 손님으로 느끼고 이들이 살아가도록 보살피



는 것이 오늘날 동물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다.

이 책에서 가장 낮은 장면은 도축장에 관련된 이야기다. 도축장은 소나 돼지를 잡아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육고기로 만드는 곳이다.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도축장을 떠올리기는 싫어한다. 인간의 욕망이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도축장 근무자들도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며 위생과 청결에 만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책을 읽노라면 수의사가 하는 일과 동물들의 온갖 사연들이 한 겹씩 풀어지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데 모자람이 없다.

수업의 초점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산업 사회에서 고독감이 점차 확대되며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일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만 높아진 것은 아니다. 생태와 자연에 대한 이해의 수준도 높아져서 도심을 헤매는 길고양이나 주인 잃은 유기견에게도 사회적인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일도 잇을 만하면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처럼 도심 속을 떠도는 동물들까지, 어째서 그 생명들을 존중해야 하는지 각자 의견을 말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동물들을 대할 때 그 특성을 이해하고 돕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나 다른 동물들을 대할 때, 동물에 대한 이해가 모자랄 때가 많다. 특히 동물원에서는 반복되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를 주거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범했던 실수를 성찰하고 오해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있다면 추후 동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자신이 범했던 실수들을 떠올려 보고 주변에 존재하는 동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지도한다.

이밖에도 동물들의 희생을 줄이고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책 읽기의 중요한 방향이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이나 동물원의 동물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우유를 생산하는 소 이야기나, 도축되어 고기가 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을 읽으며 동물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동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본다.

●●● 읽기 전 활동

1. 제목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 제목을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이라는 말로 지은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일까?
- 도시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동물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 '도시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법'이라는 부제처럼 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떠올려 보자.

2. 표지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 표지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표지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 인간과 갈등을 겪었던 적은 없었는지 말해 보자.

3. 작가 알아보기

- 최종욱 수의사가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수의사로서의 일상을 기록한 글이다.
- 수의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4. 차례 보며 내용 유추하기

- 차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짐작해 보자.
- 차례를 보면서 이 책을 통해 어떤 의문점들을 해결할 것인지 정리해 보자.

5. 수의사 및 동물원에 관한 배경 지식 파악하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수의사가 하는 일을 직접 확인해 보자.
- 광주 우치공원 및 동물원 누리집(uchipark.gwangju.go.kr) 참고하기
- 대한수의사회 누리집(kvma.or.kr) 참고하기

●●● 읽기 중 활동

1. 궁금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며 읽는다.
2.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다.
3. 인상 깊은 구절들을 떠올려 보고 그 이유를 정리하며 읽는다.
4. 읽기 목적과 수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 책이 270여 쪽이나 되기 때문에 책을 목차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내용을 확인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며 읽기 중 활동을 진행한다.

1장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 / 2장 동물원에서 쓰는 생명 일기

1. 내용 확인

- “사람에게 희망을 동물에겐 생명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20쪽)
- 글쓴이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31~32쪽)
- 1월에서 12월까지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37~43쪽)
- 최근 기후 변화가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60~62쪽)
- 귀소 본능을 지닌 동물 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어떤 것일까? (68~69쪽)
- 인간이 동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잡게 봤던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86~87쪽)

2. 느낀 점 정리하기

- 인간은 반려동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해 보자.
-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가정하고 인간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 말해 보자.
- 인간의 관점으로 동물을 잘못 대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

3장 대관령 목장의 풍경 / 4장 우리가 고기를 먹기까지

1. 내용 확인

- 우유를 생산하는 대관령 목장에서 수의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123~124쪽)
- 최종육 수의사는 대관령 목장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해 보자. (135~138쪽)
- 도축장에서 수의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146~149쪽)
- 시골에서 소를 잡던 시절과 대량 생산 체제 하의 도축장에서 소를 잡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165쪽)
- 소고기 등급제의 시행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며, 어떤 점에서 부정적일까? (203~210쪽)
- 도축장 건물에 동물을 배려한 구조를 설계한 학자는 누구인지 말해 보고, 그가 설계한 도축장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178~180쪽)

2. 느낀 점 정리하기

- 인간의 삶을 위해 동물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인지 말해 보자. (우유를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것을 떠올리면서.)
- 동물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때, 그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자.
- 도축장처럼 남들이 일하기 꺼리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

5장 동물들이 내게 남긴 말 / 도시에 사는 야생동물들

1. 내용 확인

- 동물 부검이 수의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89쪽)
- 환경의 변화가 동물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책 속에 서술된 것은 무엇인가? (213~220쪽)
-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호랑이, 표범, 늑대 등 대형 포유류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233쪽)
- 야생 동물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241쪽)

2. 느낀 점 정리하기

- 자신의 서식지를 빼앗긴 동물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적어 보자.
-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 현재 유해 동물로 취급되고 있는 멧돼지, 비둘기 등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 읽기 후 활동

1.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찰해 보자.

- 책을 읽는 목적과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책을 읽었는가?
- 읽는 중에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며 읽었는가?
- 읽는 중에 시대적인 상황 등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하며 읽었는가?
- 읽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2. 모둠별로 나누어 독후 활동을 진행해 보자.

1) 모둠을 지어서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화제를 각자 적어 보자.

(예시)

-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까닭을 말해 보자.
- 도시에서 동물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보자.(길고양이 및 유기견 문제, 동물 안락사 문제, 로드킬 문제, 전염병 문제 등 동물과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말해 보기.)
- 육식 문화로 인해 희생되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보자.(경우에 따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보면서 기존 육식 문화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것도 추천.)

2) 모둠원들이 준비한 화제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눌지 계획을 세워 보자.

3) 모둠원들끼리 이야기 순서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진행자 1명, 기록 2명, 정리 1명 등으로 모둠을 구성할 것. 신문으로 구성하거나, UCC 등으로 제작해 보는 것도 추천함.)

Tip! 모둠별 활동을 진행할 때는 주제가 겹치지 않는지 교사가 미리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조별로 주제가 지나치게 비슷할 경우, 발표할 때 내용이 겹쳐 자칫 지루할 수 있다.



모둠 활동 예시

1. 신문, 카드 뉴스, 포스터 혹은 UCC 제작하기

우리 모듬은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을 읽고 도시에서 동물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도심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분류해 보았다. 첫째로 참새와 비둘기, 까치와 같은 조류가 있었고, 둘째로는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있었으며, 셋째로는 도심 근처 야산에 있는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에 가끔 출현하는 말벌이 있다. 우리 모듬은 이들의 생태를 조사하고 이들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한 뒤, 이를 카드 뉴스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제작시 고려사항

1. 각 동물들이 도심에서 살아가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담거나 사진 자료를 찾는다.
2. 각 동물들이 지닌 생태적 특성을 인터넷이나 사전, 전문 서적 등에서 찾아 정리한다.
3. 각 동물들이 지닌 생태적 특성에 맞게 그들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다.
(예시: 길고양이 쉼터 마련, 동물 특성에 맞는 생태 통로 만들기, 텃새들의 귀소 본능을 활용한 서식지 마련하기 및 산란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기)
4. 카드 뉴스나 UCC가 지루하지 않게 적절한 이미지, 적절한 비유, 적절한 음악 등을 적극 활용한다.

2. 모듬 토의 과정을 정리하여 보여주기

우리 모듬은 인상 깊은 구절로 도축장 장면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이 강한 조원이 많았고, 특히 조원 중 채식주의자가 있어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다. 육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채식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을 절제하지는 친구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듬 활동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런 까닭에 별도의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의견을 나누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다. 조금 산만할 수도 있지만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시간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독후 활동이었다.

민수 저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도축장에서 도망치거나 두려워하는 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희생하는 것은 반대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생존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절제하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도 되니 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육식을 줄이거나 그만두고 채식 위주로 인간의 식습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우찬 민수의 말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연계는 본래 먹이사슬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생고기를 즐기고, 코끼리나 기린은 채식을 즐깁니다. 이런 자연의 순리예요. 만약 자연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면 사자나 호랑이도 생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코끼리나 기린도 채식을 하지 말아야 해요. 채식도 식물의 생장을 막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무작정 생명을 존중한다고 육식 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육식은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오던 식습관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단백질을 공급받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저는 육식을 야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요.

다연 저는 육식을 즐기고 있고 육식을 거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인류의 지나친 육식 때문에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거나 빈곤이나 기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곡물 사료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곡물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요. 게다가 아프리카 등 식량난으로 곤란을 겪는 지역이 많은데 육식을 지나치게 즐기다 보면 인간을 위한 경작지가 줄어들 거예요. 저는 육식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옥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축장에서 도살당하는 소의 눈빛들을 보니 마음이 슬퍼졌죠.

승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기계에 의해서 도축당하는 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이 책에도 나오던데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이 불안이나 공포,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수의사분들이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거나 동물의 의식을 연구해서 그들이 적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좋은 조건 속에서 도축되도록 했으면 해요. 참, 책을 읽으면서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물의 죽음을 결정지어야 하니까요. 또한 동물을 도축하는 분들의 심정도 알게 되었죠. 조금 빛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필요에 의한 도축이라 하더라도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